



천년 동안 참 많이도 아팠구나

국보 제10호
남원 실상사 백담암 삼층석탑
(南原 實相寺 百丈庵 三層石塔) ▶2면

현대불교

미래에 해야 할 일을 준비하라.
미래 준비하는 사람은
할 일을 해야 할 때에 당황하지 않는다.
- 본생경 -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 867호 2011년 12월 21일 수요일 (음력 11월 27일 · 불기 2555년 · 주간)

조계종 제13대 종정 진제 대종사

14일 원로회의 단독 추천 20분 만에 만장일치 추대
“종단의 화합과 간화선 진작에 매진하겠다”

조계종 종통을 승계하는 최고 권위의 정신적 지도자인 제13대 종정에 동화사 조실 범원당 진제 대종사가 추대됐다.

원로의원 23명과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등으로 구성된 조계종 종정추대위원회는 12월 14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회의를 열고 20분 만에 동화사 조실 진제 대종사를 제13대 종정에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원로회의 사무처장 덕문 스님은 브리핑에

어지고 점점 혼탁해가고 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이웃과 고통 받는 중생이 있는 곳에 우리 모두가 아픔을 함께하며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대승보살도를 실천해 이 시대 정신사의 향도자(嚮導者) 역할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스님은 “모든 국민이 내안의 대자유와 밝은 지혜를 얻을 때, 남과 더불어 참다운 평화를 이루고 하나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며 “각자 자기의 직분에 성실한 가운데 ‘마음 닦는 수행’을 생활화 하자”고 강조했다.

학자 풀니터 교수와 대구와 미국 뉴욕에서 두 차례 종교간 평화대화를 여는 등 간화선 대중화 및 세계화에 앞장서 온 선지식이다. 스님은 1934년 경남 남해에서 출생했다. 1954년 해인사에서 출가해 석우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1957년 통도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67년 당대 선지식으로 추앙받던 항곡 선사와의 범거랑을 통해 전법계를 받고 33세에 경허-수월-운봉-항곡 스님으로 이어져 내려온 임제정맥을 계승했다. 진제 스님은 현재 1971년 해운정사를 창건해 조실을 맡고 있다. 1994년부터 동화사 금당선원, 1996년 조계종 기본선원 조실도 겸하고 있다.

진제 스님은 <돌사람 크게 웃네(石人大笑)>



법랍 47년 한국 대표적 선승

내년 3월 26일 업무 시작 임기 5년

서 “진제 스님이 단독으로 추천돼 곧바로 만장일치로 추대됐다”며 “추대식은 현 종정예하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3월25일 이후 봉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정에 추대된 진제 스님은 덕문 스님을 통해 “산승은 앞으로 우리 종단의 화합과 수행을 위해 원로스님들의 고견을 받을 것이다. 중앙종정문화의 정수이자 조계종 본체인 간화선을 널리 진작하는데 매진하겠다”고 수락의 말을 전했다.

진제 스님은 별도로 마련한 소감문에서 “우리 인간의 주인, 주체는 정신이다. 오늘날 세계는 물질이 정신을 지배하는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치관이 전도돼 지구상의 질서가 허물

“큰 지혜를 가진 이는 어리석어 보임이나 사람들이 헤아리지 못함이고, 진리의 전(塵)을 거두어 놓는데 또한 걸림이 없음이로다.”

진제 스님은 소감문 말미에 “큰 지혜를 가진 이는 어리석어 보임이나, 사람들이 헤아리지 못함이고 진리의 전(塵)을 거두어 놓는데 또한 걸림이 없음이로다(大智如愚人莫測 來來去去亦非拘)”라는 계승으로 가르침을 전했다.

조계종은 추대 결의 직후 총무원장 자승 스님,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호계원장 범등 스님의 인례로 진제 대종사를 조계사 대웅전에 모시고 종정 추대 고불의식을 봉행했다.

진제 스님은 ‘남진제 북송담’으로 회자할 정도로 한국 불교계를 대표하는 선승이다. 1998년과 2000년 무차선대법회, 2009년 백교좌대법회를 비롯해 2010년과 2011년에는 신

<石人(석인)은 물을 길고 木女(목녀)는 꽃을 따네>와 영문 법어집 <Open the Mind, See the Light(오픈 더 마인드, 시 더 라이트)> 등의 다수의 법어집을 펴냈다.

한편, 조계종 종헌에 따르면 종정은 원로의원,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등이 참석한 종정추대회의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종정추대회의는 법랍 45세, 세납 65세 이상의 대종사를 대상으로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것이 전통이다.

새 종정 진제 스님의 임기는 2012년 3월 26일부터 5년간이다. [관련기사 3 · 31면](#)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상월 조사 탄신 100주년 천태종 미래를 향하여

22일 구인사서 법요식 등 다양한 문화축제

한국 천태종 중흥조 상월원각 조사 탄신 100주년 기념행사가 12월 22일 오전 10시 단양 구인사에서 봉행된다. 행사는 법요식에 ▶다례재 ▶찬탄7박8일 기도정진 ▶동지 팔죽 나눔행사 등 문화축제가 더해져 진행된다.

천태종(총무원장대행 무원)은 12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중국불교협회 홍두 상무이사, 중국 국청사 감원 윤관

스님, 일본 천태종 종기고문 니시 오카 료코 등 한·중·일 불교계 대표들이 참가한다. 다례재도 한·중·일이 각각의 의식과 절차에 따라 여법하게 봉행돼 동북아 불교계의 우호를 다지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총무원장대행 무원 스님은 “봉축법요식에는 한·중·일 대표단 스님들뿐만 아니라 신도 등 2만 여 사부대중이 대거 동참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국보 묘탑비에 십자 표시, ‘충격’

부산지역 사찰에서 불상을 훼손하는 ‘훼불’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국보로 지정된 고려시대 국사(國師)의 묘탑비에서 십(十)자 표시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김규현 한국티베트문화연구소 소장은 11월 22일 페이스북 부루나에 국보 제59호인 고려시대의 법천사지광국사현묘탑비가 훼손된 사진을 올리고 “아마도 특정종교 광신도의 소행으로 보인다”며 “묘탑비의 높이가 5m가 넘는 것을 감안하면 밤중에 사다리를 놓고 날카로운 쇠붙이로 특정종교의 표시를 그려놓은 것 같다”고 밝혔다.

김규현 소장은 “특히 이 현묘탑비는 우리나라의 차(茶)문화에 귀중한 명칭이 5곳이나 쓰인 비석으로 우리나라 금석학의 최고의 보배



로 꼽는 널리 알려진 유명한 비석”이라고 강조했다.

탑비 훼손 사진을 본 불자들은 “그들의 목표는 오직 천주교와 개신교 국가관뿐이다”, “종교인들이 함께 종교평화를 다짐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묘살이 하듯 스님들과 뜻있는 불자들이 움막이라도 치고 살아야 한다”는 등의 분노와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내 안의 빛을 바로 보자”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12월 16일 조계사에서 성탄트리를 점등했다. 일주문에 세워진 세 개의 성탄 트리는 불교의 참 가지인 생명, 나눔, 평화를 실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점등식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 조계종 사회복지혜경 스님과 가톨릭 이정주 신부를 비롯해 대구 대전 부산 등 각 지역 가톨릭 부제 40여 명이 참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5일 성탄 축하 메시지를 발표하고 “세상의 모든 빛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며 “자기 안의 빛을 바로 보고 그 빛을 더욱 밝혀 그늘진 이웃을 살피자”고 말했다.

글=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신상품 LED인동·전구
찬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농인향당
농인향당의 침향전문점
침향갤러리
침향복합물 · 침향염주 · 침향선향
갤러리 02-738-6777 (조계사 맞은편)
문서 02-3663-6777 www.nihwa.com

867호 CONTENTS

종단 정신대 할머니 수요집회 1000차 태고종 내년 예산 67억원 조선의궤 환수 국민 환영 행사

조계종 새 종정 진제 스님 3

절에서 시작하는 새해 5



팜아트로 만나는 탄허 스님 21

2012 학년도

봉녕사승가대학·금강울학승가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새로 지정된 종단 지원 봉녕사 승가대학과 금강울학전승가대학원은 전통경전의 강독과 수행생활은 물론 실용불교와 불교문화를 보강하기 위하여 2011학년도부터 교육원에서 개편한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울학승가대학원은 통학도 가능합니다.

근현대 대강백 운허스님과 김경봉 강백으로부터 강맥을 이어받고 자운 대울사로부터 울맥을 전수받은 최초의 비구니 강사, 현대 한국불교 비구니 교육의 기틀을 다진 묘엄 스님의 원력이 깃든 봉녕사에서 자비로운 품성과 지혜로운 안목으로 역사와 사회의 염원에 부응하는 청정한 승가상을 구현할 새로운 승가교육의 장을 열어 가겠습니다.

봉녕사승가대학 신(편)입생 모집

- 자격 _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명
- 전형방법 _ 서류 전형 및 면접
- 제출서류 _ 입학원서, 추천서, 승려증 사본, 건강진단서, 사진 3매
- 원서마감 _ 2012년 1월 12일(木 음, 12.19)
- 면접일자 _ 2012년 1월 13일(金 음, 12.20)

봉녕사승가대학 학장

금강울학승가대학원 신입생 모집

- 자격 _ 비구니계를 수지한 자 ○명
- 전형방법 _ 서류 전형 및 면접
- 제출서류 _ 입학원서, 추천서, 수행일지서, 승려증 사본, 건강진단서, 사진 3매
- 원서마감 _ 2012년 1월 12일(木 음, 12.19)
- 면접일자 _ 2012년 1월 13일(金 음, 12.20)

금강울학승가대학원 울원장 대 우

승가대학 외부교과 및 교수진 시행계획

교과목	교수진	약 령
불교개론	임상희교수	동국대학교 상임연구원
한국불교사	김상현교수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장
선치료상담	인경스님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 한국명상치료학회 회장
종관사상	도용스님	실상사 화엄학원 교수
세계불교사	석림암교수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hk)연구센터 교수
아미달마의 이해	우재선교수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 교수
선종사	중호스님	동국대학교 중학연구소장
간화선사상	월암스님	한신사 용성선원장
불교와 여성	조승미교수	서강대학교 종교연구소 선임연구원
불교생태학	우희중교수	서울대학교 수의과 교수
사찰음식	선재스님	선재사찰음식문화원 원장
스피치강의	이선미선생님	전 MBC·불교방송 아나운서, 현 이선미스피치클럽 원장
요가&필라테스	보희원장님	요가레미안 원장
불교영어	김수희선생님	

울학승가대학원 외부교과 및 교수진 시행계획

교과목	교수진	약 령
초기불교의 계율사상	각목스님	실상사화엄학원 교수, 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현대사회의 불교윤리	박병기교수	한국고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통일교육연구소장, 다문화교육연구소장
법과 현대사회	최재천교수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연세대 의과대학 외래교수, 이화여대·영남대·전남대 로스쿨, 광운대 겸임교수
대승경의의 연구	지관스님	조계종 교수이사리, 불교환경연대 4대대대위원장회 위원장
초기불교 교단생활	자현스님	계율학박사, 조계종 교수이사리
벨리어(벨리 울징)	백도수교수	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